

산업보건 미래를 대비하자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 한성대학교 교수

박두용



1만 불, 2만 불, 3만 불과 환경, 안전, 보건의 시대

전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한 국가의 환경안전보건 수준은 대개 1인당 국민소득과 비례하며, 1만 불, 2만 불, 3만 불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대체로 1만 불 정도에서 환경이 '일반화' 된다. 일반화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이나 의의를 알기 시작하며, 각자의 여건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투자를 할 용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시민, 남녀노소 모두 환경의 중요성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친환경세제를 구입하는 등 환경보호에 스스로 동참한다.

그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권리의식도 싹트기 시작한다. 환경관련법도 사후적 대처에서 사전적 예방 중심으로 이동한다. 법령의 명칭도 대기오염방지법이나 수질오염방지법과 같은 사후적 대처에서 대기보전법이나 수질보전법과 같은 전향적인 능동형 사전대처법의 형태로 전환된다.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가 되면 안전이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 사고가 나면 개인의 불운이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2만 불이 넘어서면 내가 왜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시작한다. 대규모 인적재난이 발생하면 그 전까지는 추모분위기와 사회적 부조분위기(성금모금) 등이 주류를 이루지만, 2만 불이 넘어가면 분노와 책임소재 규명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높아진다. 피해자 유족들도 그저 불쌍한 사람들로 보이기를 거부하기 시작한다. 성금이나 보상을 거부하고 배상을 받고 싶어한다. 사회적 폐해의 피해자로 성금이나 보상보다는 배상을 받고자 한다. 안전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식이 동시에 신장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에어백이나 ABS브레이크, 사륜구동 등 안전관련 비용을 기꺼이 더 지출하기 시작한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서면 보건의 일반화된다고 한다. 개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동안 개인적으로 건강에 투자하던 것을 사회나 국가가 공동체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하며, 보건의 의무와 권리의식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지금 암에 걸리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인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하지만, 3만 불 정도를 넘어가는 사회에서는 암의 발병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지기 시작하며 암 관련 소송이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한다. 암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방식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요구수준은 3만 불, 위험은 2만5천불, 안전인프라는 1만5천불 시대

이러한 변화 추세는 나라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우리나라 위험은 분야를 불문하고 ‘대형화, 고도화, 집적화, 복합화’ 라는 위험사회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인력, 기술, 법, 제도, 재원(예산)을 통틀어 안전인프라는 기껏해야 1만 5천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이미 2만 5천불을 넘어 구매력 수준과 비슷한 3만 불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안전인프라는 1만 5천불짜리인데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3만 불 사회에 살고 있다. 1만 불 이상의 격차(gap)만큼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셈이다.

2030년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

UN에서 발간한 미래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지구상에서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고 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프레이(Frey)와 오스본(Osborne)교수가 발표한 ‘미래의 고용’이라는 논문을 보면 현재의 많은 직업들이 앞으로 컴퓨터나 IT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들은 700개의 직업을 대상으로 향후 기계나 컴퓨터에 의해 대체할 가능성을 계산하여 그 순위를 발표했다. 그들의 전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라는 직업이 컴퓨터로 대체될 확률은 19%로 전체 700개 직업 중 기계나 컴퓨터로 대체하기 어려운 순서로 196등을 차지하였다.

한편 2013년 싱가포르 국제산업안전보건 자문단 회의에서 향후 산업보건, 특히 산업위생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전망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이때 참가자들 모두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위생, 그 중에서도 특히 단순 측정과 분석은 얼마가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 대신 **사업장과의 오래된 친밀도를 가지고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경영과 근로자들의 감정을 함께 건설링하는 영역으로 전환되거나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곧, 다가 올 3만 불의 시대 산업보건은 살아남을 것인가?

머지않아 3만 불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국민들은 4만 불 수준의 산업보건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보건 인프라는 어느 수준일까? 지난 30년간 측정, 대행, 검진의 세 기둥은 우리나라 산업보건을 발전시켰고 지탱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수명이 다해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리모델링 수준으로 버틸 일이 아니다. 앞으로 30년을 지켜 줄 새로운 기초와 기둥을 재설계해야 한다. 세상이 정말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제언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빌려 감히 2030 대한민국 산업보건을 설계하기 위해 가칭 ‘미래산업보건 포럼’을 제안하는 바이다. ☺